



4면

“공·사립학교차별없이 지원”

전주매일

2023년 11월 2일 목요일 (음 9월 19일) 제3376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한·일 지방정부 교류·협력 확대 모색

김관영 전북도지사

‘한·일 지사회의’ 참석

“인구문제 해결 핵심 청년 지역정착 유도 전북, 대규모 기업유치 지방기업 성장 지원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중”

오늘 한일의원연맹

료타 간사장 등과 면담



1일 일본 아마나시현에서 제7회 한일지사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관영 전북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등 우리나라 5개 시·도지사들과 일본 11개 도도부현 지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지방정부 간 교류·협력 확대를 위한 제7회 한일지사회의 참석을 위해 1일부터 2일까지 일본 출장을 다녀왔다.

이번 제7회 한일지사회의는 지난 2017년 부산에서 개최된 제6회 회의 이후 코로나19와 한일관계 경색 등으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가 6년만에 일본 아마나시현에서 열리게 됐다. 이번 회의에는 전북도를 비롯해 경북 인천, 세종 강원 등 우리나라 5개 시·도지사들과 일본 11개 도도부현 지사가 참석해 저출산·고령화 균형발전, 한일 지자체 간 협력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김관영 지사는 이번 회의에서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전북도의 주요 정책인 기업유치와 특별자치도 추진 사례

를 발표했다.

김 지사는 “인구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청년들의 지역정착 유도하는 것으로, 지역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청년들의 정착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전북에서는 대규모 기업 투자유치와 지방기업 성장 지원 제도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북은 새만금이라는 광활한 땅이 있어 특별자치도를 통해 전북민의 강점을 살린 새로운 도

전의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를 비전으로 한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정책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통해 지역 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율리 “저출생·고령화의 흐름에서 지방소멸의 위기를 한순간에 반전시키기는 어려운 만큼 한일 시도지사들이 의견을 모으고 함께 힘을 합친다면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김관영 지사를 비롯한 시도지사들은 11월 2일 도쿄로 이동해 한일의원연맹 디케다 료타 간사장을 비롯한 일본 정부요인 면담을 통해 한일 지방정부 간 우호·협력 증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눌 계획이다.

한일지사회의는 지난 1998년 2월 김대중 대통령 취임사에 참석한 일본 전국지사회장의 제안으로 1999년 제1회 회의가 열렸으며, 그동안 6차례 회의(한국회 3회)가 개최된 바 있다. /김재훈 기자

미래교육캠퍼스 설립 ‘탄탄대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서 최종 승인
2026년까지 전라중 이전 적지에 건립
도교육청, 6일 디자인 워크숍 개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이 탄탄대로를 걷게 됐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0월 27일 열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미래교육캠퍼스 설립이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올해 4월 교육부 중부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고, 이번에 기관 성격·프로그램 구성·공간 구성의 명확화 등 조건부 승인에 대한 부대 의견 보고가 ‘적정’ 승인을 받은 것이다.

이로써 전주 에코시티로 이전하는 전라중 부지에 미래교육캠퍼스 건립이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전라중학교 이전 적지에 전국 최고 수준의 미래교육캠퍼스를 건립해 이 일대를 미래교육의 메카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2026년까지 약 479억원을 투입해 지상 4층, 연면적 1만285㎡ 규모의 미래교육캠퍼스를 건립한다.

미래교육캠퍼스에는 △미래기술

체험관 △미래진로체험관 △미래교육관 △공유관 △e-스포츠관 등이 들어선다.

이와 관련해 전북교육청은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전주라한호텔에서 미래교육캠퍼스 디자인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디자인 워크숍은 미래교육캠퍼스의 교육 프로그램, 콘텐츠 구축 및 공간구성에 대한 교육공동체 의견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미래교육에 관심있는 도민까지 80여 명이 참석한다.

민완성 미래교육과장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거점 기관인 미래교육캠퍼스의 중앙투자심사 부대 의견 적정으로 사업이 최종 확정됐다”면서 “교육주체와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생들의 미래를 밝혀줄 수 있는 공간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공·사립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 ‘처음학교로’ 접수 시작

도교육청, 우선모집 원서접수 중... 16~29일 일반모집

온라인 접수 어려울 경우 유치원 방문 현장접수도 가능

2024학년도 공·사립유치원 유아모집을 위한 ‘처음학교로’ 학부모 서비스가 시작됐다.

처음학교로는 유치원 입학의 공정성과 학부모 편의 제공을 위해 온라인으로 입학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도내 모든 공·사립유치원이 의무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1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학부모가 보호자는 학부모 서비스를 통해 회원 가입과 유아 정보를 사전에 등록한 후, 개통과 동시에 우선모집 조건에 따라 유치원 3개까지 선택할 수 있다.

우선모집 대상은 법정저소득층, 국가보훈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생생아, 다문화, 다자녀, 장애부모 가정 자녀 등

이다.

우선모집은 해당 자격조건이 충족돼야 하고, 일반모집은 사전 접수와 본 접수 기간에 맞춰 유치원 3개까지 희망 순으로 접수할 수 있다.

일반모집 선발은 오는 16~29일이다. 다만 일반모집은 중복 선발이 제한되므로 1회방 유치원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처음학교로는 회원가입, 접수·선발·등록 등 모든 과정을 컴퓨터(PC)와 모바일로 처리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학부모(보호자)는 유치원 업무시간에 직접 방문해 현장접수도 가능하다.

한편 올해부터는 PC와 모바일 접수 시간을 동일하게 맞췄고, 온라인과 현장의 교차접수 또한 가능하게 됐다. 또 결원정보 및 추가모집 정보알림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편의도 향상시켰다.

임대섭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유치원 입학관리시스템인 처음학교로를 통해 학부모의 편의성을 높이고, 유치원 입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장은성 기자

6~7월 도내 호우 피해 공공시설 신속 복구에 활용

전북도(도지사 김관영)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호우 피해 공공시설 복구비용 특별교부세 147.3억원을 확보해 시군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행안부의 특별교부세는 총 147.3억원 규모로 도 분청 57.9억, 호우 피해로 국고지원(우심지역)이 되는 7개 시군과 도로 낙석으로 도로사면 피해가 발생한 정읍시를 포함해 총 8개 시군에 88.4억원을 확보했다.

6~7월 기록적인 호우로 인해 발생한 433건의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지

방비 403억원(도비 125, 시군비 278)이 소요되어 지방재정에 부담이 있으나, 호우 피해가 크게 발생한 시군에 지방비 부담액 대비 36%에 해당하는 특교세를 추가 확보함으로써 지방비 경감에 큰 도움이 됐다.

이번에 확보한 재난안전특교세는 추경 예산 등 행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시군에 교부해 실시 설계비 등에 우선 활용하며, 도 담당부서 및 시·군이 협력해 토지보상과 행정절차를 신속히 완료하고 신속히 복구공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

축! 전주매일 창간



jjnh.nonghyup.com

전주농협



물 좋고 공기 좋은 우리 고장 전주에서 생산된 대표특산품,

복숭아, 배, 호박, 미나리, 장미

전주농협에서 맛과 신선함을 책임지고 여러분에게 선보입니다.

